

Today's Chart

2022-08-12

[Economist] 박상현 (2122-9196) shpark@hi-ib.com, 류진이 (2122-9210) jinlee@hi-ib.com

국내 수출, 글로벌 경기와 산업사이클의 거울

그림1. OECD 경기선행지수와 '한국과 중국' 수출증가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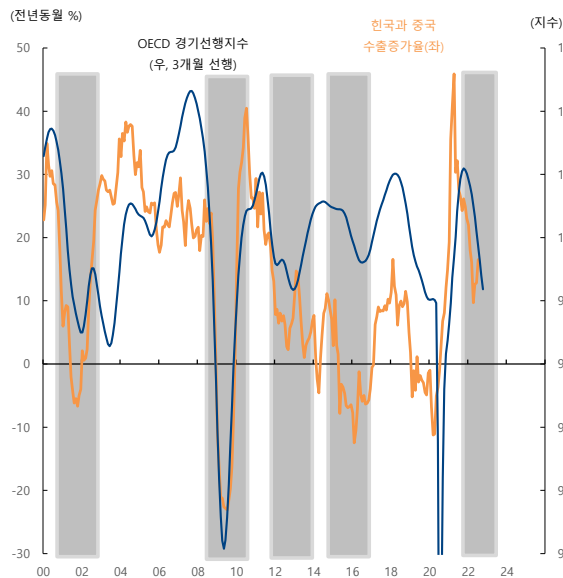


표 1.8 월 1~10 일 주요국 수출증가율

주요 국가	금액 (백만 달러)	증감률 (전년동기 %)
중국	3,909	-2.8
미국	1,941	17.5
EU	1,634	66.2
베트남	1,461	10.2
싱가포르	722	169.1
일본	680	17.3
대만	665	6.0
인도	484	46.9
말레이시아	393	96.4
홍콩	329	-44.4

그림2. 선진국 고용호조가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'한국과 중국' 수출경기를 지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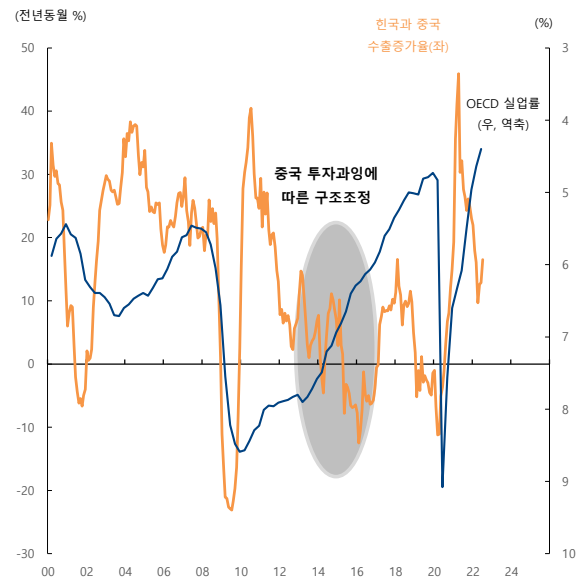


표 2.8 월 1~10 일 주요제품 수출증가율

주요 품목	금액 (백만 달러)	증감률 (전년동기 %)
반도체	2,991	-5.1
석유제품	2,250	177
철강제품	1,244	26.3
무선통신기기	564	-17.7
승용차	422	191.9
자동차 부품	404	29.4
정밀기기	314	9.5
가전제품	279	104.3
컴퓨터 주변기기	237	-19.0
선박	74	89.3

자료: 관세청,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

■ 8 월, 수출, 출발은 우려보다 양호

8 월 1~10 일 수출증가율 전년동기 23.2%

- 8 월 수출이 우려보다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임. 조업일수가 1 일 많지만 8 월 1~10 일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23.2% 증가함.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증가율은 전년동기 8.7%를 기록함
-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출 경기가 아직까지 우려보다는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음. 국내 수출은 물론 중국 수출사이클을 보더라도 견조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. 참고로 7 월 중국 수출증가율은 전년동월 18%의 높은 수준을 유지중임

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호조가 국내 수출경기 악화를 방어

- 한국과 중국 수출사이클이 글로벌 경기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. 이처럼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원인으로는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효과도 있지만 글로벌 고용시장이 양호한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임
- <그림 1>에서 보듯 '한국과 중국' 수출경기는 OECD 경기선행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경기선행지수 둔화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'한국과 중국' 수출증가율 하락세는 주춤한 상황임. <그림 2>의 OECD 국가의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 추이에서 보듯 고용시장 호조가 '한국과 중국' 수출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
- 이는 선진국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 경우 국내 수출경기가 당초 우려보다 악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

■ 국내 수출, 글로벌 경기와 산업사이클의 거울

선진국 수출 견조 VS 중화권 수출 부진

- 8 월 1~10 일까지 국내 수출의 국가별 현황을 보면 각국 경기사이클을 잘 대변해주고 있음
- 우선, 대미와 대 EU 수출증가율은 8 월 1~10 일 기간 중 전년동기 각각 17.5%와 66.2%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중임.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호조 등으로 아직까지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음
- 반면 대중화권 수출은 부진이 이어짐. 8 월 1~10 일 기간 중 대중국과 대홍콩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 -2.8%와 -44.4%를 기록함. 중국 경기경착륙 리스크가 국내 대중화권 수출경기로 전이되고 있음. 특히 대중 무역수지의 경우 10 일까지 8.9 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4 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짐
- 이머징 수출은 동기간 급증함.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됨

반도체 등 IT 수출 부진 VS 석유제품 및 승용차 수출 호조

-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부진을 대변하듯 8 월 1~10 일 기간 중 국내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기준 -2.8%의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 역시 전년동기 -17.7%의 감소를 보임.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부진 여파가 국내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
- 석유제품의 경우 단가상승과 글로벌 수급 불안 여파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수출증가율 급등은 눈에 띄는 부문임. 다만 자동차 수출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
- 종합해보면 국내 수출경기는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아직 견조한 수준임. 이는 대선진국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바 큼. 다만, 대중화권 수출 부진과 반도체 등 IT 수출 부진 본격화는 향후 수출경기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함

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